

## 제 8 장 사도 행전 Tape #8097

자, 당신의 성경에서 사도행전 8 장을 펴보세요. 지난 주 7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젊은이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하여 그를 돌로 치는 일에 참여했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동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장의 처음에서 우리는 다시 이 사람 사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을 따라 가 볼수록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8 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는, 1 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마치 사울이 교회를 대항한 이 핍박에서 주모자 중에 선봉에 서있는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 절에서 읽습니다. 3 절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자더라.”** 11 장에서 보면, 이제 스테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러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키프러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핍박을 받던 자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간 모든 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핍박이 교회에게 무거운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핍박을 사용하 tu 서, 전 지역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로부터 힘을 느끼고, 서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강한 지체에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은 항상 좋았고, 편안했고, 물론 지금도 좋고 편안합니다. 우리는 강한 모임(교제)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을 느껴, 종종 모임이 너무 좋고, 관계를 더 가까이 하니,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흥분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운동의 한 부분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그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 지역으로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하여 그 핍박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핍박 안에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그들은 안디옥으로 갔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가르쳤으나, 나중에 키프러스에서도 사람이 와서, 우리는 바나바가 키프러스에서 왔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시작되었고, 당시 바나바는 직감적으로 사울이 다소 은닉 상태로 있었던 다소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회심에 대해서는 9 장에서 볼 것이지만, 그는 회심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로 갔으나, 그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됐고, 차가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왔던 것인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던 바나바는 그 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던 것이니, 그 이유는 지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리스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다루려면 그들에게 맞는 이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울 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에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갔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지요? 다소에서 자랄 때, 그는 그리스의 문화에 익숙했고,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아래서 수학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성경구절들에 숙달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볼 때 성경에 숙달된 좋은 사람이며,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 가운데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맞춘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에 대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멀리 도망치도록 원인을 제공한 우두머리 꾀박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 바로 거기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돌아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일을 행하시는데 있어, 관심이 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분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즉 사울의 꾀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이는 나중에 그가 중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돌아갔던 곳이 됩니다.

행 22:20 에 보면, 바울이 그의 간증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절기동안 거기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가 거기 있는 동안, 야고보는, 음, 바울! 자네는 토론의 여지가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자유로움과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열려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보게! 바울, 우리는 자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보고 있으니, 자네가 모든 것에서 좋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침 우리에게 절기를 준수하기 원하는 두 젊은이가 있으니, 당신이 전 과정을 마쳐야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성결의식을 전부 끝마쳐만 하는데, 왜 당신이 그들을 위한 후원자가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결의식을 전부 끝마치는데 있어, 당신이 실제로 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성결의식에 반드시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했다네. 사람들이, 그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오, 음, 이 선한 유대인 사나이는 절기와 그 모든 것을 준수하기 원했던 다른 젊은 사람들의 비용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왜 그들의 비용을 담당하지 않는단 말이요?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가질 만큼 그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유대인처럼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로마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일종의 대결[대적]과 같은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단지 흐르는 대로 가니, 상관 없습니다. 그럼요,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성전 땅에 있을 동안에, 아시아에서 그의 행로를 우연히 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가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던 것을 본 그들이, 이 사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르치던 자라고 고소했는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성전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가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때려눕히기

시작하자,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성전 뜰에서 난 소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려와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해 낸 뒤, 안토니오 요새로 다시 돌아감으로서, 바울은 로마 병사들의 보호 아래 구금되었습니다. 요새 바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위로 거기 현관까지 그들이 올려놓았을 때, 바울은 대장에게, 내가 잠깐 한 말을 해도 되겠느냐? 고 묻었고, 그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자, 바울은 말하기를, 여보게 동료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형제들이오, 나는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소, 나도 단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학급으로 가말리엘 아래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도 알고 있소, 나도 한 때는 그런 감정을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그들과 나누었으며, 스테반의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그의 곁에서 그의 죽음에 동의를 했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동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놀라운 것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 장에서(22:3-4), 그가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자랐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 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기까지 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마땅히 많은 일을 하여야 하리라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여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26:9-10). 또한 나는 그들을 대적하는 일에 가표를 던졌고,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으며[이것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한 증거임],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타국의 도시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말하기를(고전 15:9), 이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을 괴롭혔고, 이는 사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죽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가 쓰기를(갈 1:13), 과거에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 보낸 서신에서도 그의 배경이 소개되는데(빌 3:6),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딤후 1:13 에서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공활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배경으로 볼 때, 그런 능력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에 틀림없으나, 바울의 놀라운 서신에 있는 것과 같이, 이방인의 믿는 자처럼 단지 우리도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 교리에 있어 굳건한 기초가 되고 있기에, 바울의 기록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 놀라운 근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장에서 그에 대한,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 약간을 보게 됩니다. 9 장에서는 우리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2 절까지가 이전 장의 스테반에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2 절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옮겨 장사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교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교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 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5 절 **“그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6 절 **“스테반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니,”** 여기 다시 한번,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는 교회에서 집사로 구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교회의 필요를 분배하는 일을 한 만큼 그다지 영적인 사역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갈보리 채플에서 한 때 청소원으로 있었던 자들이 오늘날 많은 도시 주변의 시골에서 같은 동료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청소원으로 신실하게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셨고, 오늘날 능력 있고 강력한 봉사로 도시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는 도시 주변에 있는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 같은 동료들을 보는 것과 그들이 시작하는 신진이었을 때는 여기서 종이나 줍고, 하찮은 일을 하였음을 깨달을 때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능력 있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반증이지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매우 능력 있는 방법으로 그를 쓰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했는데, 7 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마비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음이라.”** 8 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면 어디서나 사역의 부산물 중에 하나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확실히 스틸이 있습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종종 신약을 통해 보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의 결과는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갈 5:22), 그것은 사랑에 대한 것으로,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딱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시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9 절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더니,”** 그는 마술을 하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를 높이게 되었고,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0 절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11 절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12 절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이 시몬에게 아첨하는 일을 버리고, 빌립의 사역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녀가 침례를 받았으니까요. 13 절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과 표적을 보며 놀라니라.”** 아마 그가 자기 일을 할 때는 손의 능란한 놀림과 환각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가 빌립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아마도 알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 모두는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지만, 마술사로

불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들이 손의 능란한 놀림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속임수로 행하는 마술사를 보게 되지요. 속임수를 어떻게 행하는가를 정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합계를 내어,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팔기 때문에, 그것은 상업적인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속임수와 모든 것을 가지면, 마술을 실습하려는 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상업적인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것을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볼까? 라고 말입니다.

**14 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핍박에 연루되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분께 몰려서, 그 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시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해치우도록 음모를 꾸며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만져졌고, 많은 친구들이 치료되었으며, 그들에 대해 많이 행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일종의 어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일이 조금은 자유스러웠지만, 우리와 같은 적지 않은 사람들만이 모든 장소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15 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16 절 **“(이는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라.)”** 자, 이것은 나에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기 빌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앓은뱅이가 걸어가는 등, 빌립을 통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으나, 아직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은, 분명히 빌립은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안수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했으나, 빌립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던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은 그다지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고전 12 장에서 말할 때, 그는 강조하기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그 분의 뜻대로 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치료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음전하는 자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방언의 통역을 하는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빌립은 비록 독특한 영역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능력 있는 은사를 가졌던 것이 확실합니다. 당신도 모든 영역의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님의 어떤 은사든지 가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각자가 기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모든 것이고, 당신이 가진 은사는 무엇이든지 전체의 몸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중에 가지고 싶어 하는 은사들이 있어서, 나는 이 다른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을 열심히 탐내어 보았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게 주지 않으시면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른 은사들을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중요하여, 우리는 함께 전체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 각자 개인으로는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완전케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취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사람들은 느끼기를, 내 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그들의 은사가 탁월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란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갈보리 채플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것보다도 더욱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자들,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은 은사를 가진 자들, 그러나 은사를 실행함에 있어 신실한 자들 중에 누구를 더 큰 명예에 두려고 선택하셨는데, 이는 진짜로 탁월하거나 우수하지 않지만, 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은사의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두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입이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입을 주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꼭대기에 있는 바로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알다시피, 아닙니다, 아니죠! 꼭대기에 있는 바로 거기 있을 사람들은, 당신이 매우 놀라게 될 것인데, 아니 저게 누군가? 라고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어디에서 왔어? 전에 전혀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아닌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풍성한 영광을 수여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당신이 열심히 찾아본다면, 그를 찾을지도 모르는 맨 뒷자리에 있던 그 자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마 6: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유익되도록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실행함에 있어, 신실함 때문에 당신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도록 안수할 하는 은사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아직은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었는데, 자, 그들이 믿는 자였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이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나, 아직 성령님이 그들 위에는(epi)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전치사 epi 는 성령님과 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그 분이 당신 위에 임하시는 것이고, 또는 당신에게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 안에 성령님을 가지는 것이 한 가지 일이 되며, 이는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속으로 당신을 순응시키는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이 한 가지 일입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일이 됩니다. 당신의 삶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역동성으로, 그들이 받고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단지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곳에 성령님의 방출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했던 것으

로(요 7:37),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는 생수의 격류를 내뿜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 분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며,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흘러넘치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자, 그들의 삶으로부터 성령님의 흘러넘치는 것, 즉 이 방출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 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18 절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을 시몬이 보고 돈을 주며,”** 19 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당신이 보다시피, 그가 마술사였기에, 그가 지금 흥미로운 것을 본 것입니다. 속임수에 쓰기 위해 그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의 이름으로부터 알려진 ‘성직 매매(시모니, Simony)’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갖기 위해 지위를 사는 것입니다. 약 984년부터 1012년까지 카톨릭 교회에서 이것에 대한 한 시대가 있었는데, 교황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입찰가를 낸 자에게 팔렸으나, 그 당시 그들은 길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교황들의 재직 기간들은 매우 짧았는데, 그 자리는 매입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물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에 열려 있어서, 그들은 교회 공직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암흑시대의 한 부분이었던 터라, 이것이 왜 그것을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지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24년에서 1033년까지 교황을 지냈던 요한 19세는 교황권을 샀고, 그는 한 날에 필요한 모든 성직의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9세는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능력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돈 거래를 통하여 단지 12세에 교황으로 만들어졌으며, 물론 결국 모든 교황 중에 가장 사악한 교황의 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황 중에 가장 나쁜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위와 힘을 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 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호의를 돈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텔레비전의 모금 쇼 중에 어떤 것은 몸을 오싹하게 합니다. 그들은 매우 강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수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들이 어떤 액수의 헌금을 했고, 그들이 헌금을 하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관련을 짓는데, 그 암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위해 치료하는 것을 살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알다시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 그렇습니다, 확실히 신성모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한 일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상상한 것은 그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었고, 이것은 매우 무거운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큰 기부금을 내고서,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장소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기부금을 크게 내는 자들은 모두가 마피아인데, 그들은, 알다시피, 내가 교회에 주었다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가끔 교회가 그것에 아첨을 떠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물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팔려지면 안 됩니다! 주권적으로 성령님이 그것들을 분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21 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또 다른 은사를 실행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분별력의 은사입니다. 여기 시몬은 빌립이 했던 사역에 이끌려, 침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내내 사람들은 그를 어떤 위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한 때 가졌던 그 인식을 다시 한번 내부에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가진다면, 한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던 그 주의와 영광이 주어졌을텐데....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지배할 능력을 갖기를 원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아마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마음은 옳지 않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22 절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네 마음의 생각을 용서하실까 하노라.”** 동기. 왜 나는 이 일들을 원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잘 모른다는 것이죠. 마음은 속기 쉽고, 절망적으로 악하여, 성경구절은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살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시몬의 마음을 살펴보면, 뻔뻔함과 악독이 가득하고 불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 절 **“이는 내가 보니 네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 하매,”** 24 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의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 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많은 마을에서 멈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26 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더라.”** 27 절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그는 이디오피아 국가의 재무 장관이었습니다.)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절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추구하는데 있어 우주적인[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그는 성경구절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이디오피아로 머리를 돌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연구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찾는 마음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나는 믿으며, 하나님은 그 분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의 정직한 마음에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또한 믿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많은 재미있는 종족들,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과 나누려고 갔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분을 믿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분의 이름을 몰랐을 때조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굶주린 마음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람을 보았고, 종교 제도가 썩을 대로 썩은 예루살렘에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을 또한 보셨습니다. 상업주의화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반드시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기적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길로 내려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막을 지나가는 행로였습니다.)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절 **“그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그가 거기에 도착했고, 그는 병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병거에 올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 절 “빌립이 내시에게로 달려가서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31 절 “내시가 이르되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 절 “그가 읽은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절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시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음으로다 한 것이라.” 34 절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이 대언자가 한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은 사 53 장에 있는 이사야서의 독특한 구절이었습니다. 53 장의 전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찢림은 우리들의 범죄들로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굴욕 당함으로, 그의 정의는 떠나갔습니다. 그는 사 53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당신은 구약의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 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구약의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구절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증거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갖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후 3:6 에서, 어떻게 율법의 조문이 죽이는 것이고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것은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구절의 진정한 이해를 가져다 줄, 마음에 성경구절을 열어 주실,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고,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 까닭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고전 2:14-15 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중학교 학생 하나가 취한 성경구절에 대한 이해를, 남가주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사보다도 나는 더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 말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분께서는 모든 곳에서 성경구절에 있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35 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6 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매,” 37 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38 절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 (노트하기 바라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 절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니 내시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가되,” 자, 기억하지요? 사마리아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가진 반응, 반작용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을 행하셨을 때 가지는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40 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자, 아소도는 아스돗의 바로 북쪽에 있고, 읍바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모든 도시를 지나가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는 읍바에 머물렀고, 작은 도시들을 거쳐 가이사랴까지 갔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정착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가이사랴에 멈추어, 거기 있는 빌립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가 정착하여 살게 된 곳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으나,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대언의 은사가 있는 7명의 딸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서 영적인 가족을 일으켰으나, 그가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사역에 대해 말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9 장에서 베드로는 도르가라 하는 죽은 여인을 위해 기도하려고 읍바로 불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읍바에 베드로를 부른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존재했는지 압니까? 아마도 만약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지도를 보면, 읍바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가 모든 길에 있는 각 마을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의심할 것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빌립의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될 터인데, 그렇게 능력 있게 사마리아를 부흥케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마리아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내겐 흥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한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한 동안 거기에 당신을 머물도록 할 것이나, 그것이 성취되면,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정착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가족을 일으켰고, 그리스도인의 제도에서 활동적인 것을 계속하였으나, 그것이 얼마만한 정도인지는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 장으로 옮길 것인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회심을 들을 것이고, 그것은 매우 특이할 만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읍바 방문이 있고, 우리는 10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빌립이 아직 가이사랴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를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 읍바에 사람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많아서, 나는 사도행전을 좋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황홀한 역사와 초대교회에서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적과 치료와 능력 부어주심에 한하여 성령님이 초대 교부시대로 제한되었다고 사람들이 결정했던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대교회에

반동을, 충동을, 충전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직화해 갈 때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할 대학원이나 다른 전문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것이 교회의 상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규 교육과정이 없이 삶을 헌신한 것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사랑만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분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이 얼마나 당신을 원하고 계신지는 당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신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지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항상 기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에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에게 열려 있기를 구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섬기기 위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들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세상에 강하게 증거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